

DuPont, 독가스 VX 처리 참여포기

미군의 화학적 처리 2007년부터 불참 결정 ... 경제적 보상 불충분

미국 DuPont은 미군이 입안한 치명적 화학무기인 VX 독가스의 중화처리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월5일 발표했다.

DuPont은 인디애나의 화학무기 저장고에서 중화시킨 VX 독가스를 뉴저지의 딥워터로 옮겨 DuPont이 최종적으로 화학처리한 후 남게 되는 폐수를 델라웨어강에 방류한다는 미군의 계획에 2003년부터 관여해왔으나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군당국의 계획은 미국 환경청과 질병통제방지기구의 승인을 받았으나 환경운동가들이 맹렬히 반대하고 있고 뉴저지 당국의 승인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닉 퍼넨다키스 DuPont 부사장은 전했다.

특히, 처리과정이 매우 길고 어렵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DuPont 관계자들은 VX 중화처리 계획에 참여해 자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은 보잘 것 없으며 뉴저지 당국자들과의 관계가 DuPont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08>